

# 

## 03. 고대 동아시아의 상황과 한중일 삼국의 관계

### ①

---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참고 연표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I. 진의 통일과 황제 지배의 출현

- 「황제」(皇帝)라는 새로운 칭호의 사용

- : 「왕」은 주대 봉건제 하에서의 국(國)의 지배자. 국왕 위에는 천자(天子)

- 전국시대까지 명목상 지속되던 주대 봉건제의 부정

- 이후 청조 멸망(1911)까지 약 2100년 동안 중국 역대왕조의 군주호칭

- 짐(朕), 조(詔) 등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용어들도 마련됨

- 새로운 영토지배 방식의 채택: 군현제(郡縣制)

- : 군(郡) > 현(縣)

- : 군 · 현에 파견되는 지방관들은 국가에서 급여를 받음. 상호견제. 황제가 임면

- 이전 봉건제 하의 각 지방(國) 지배자들은 어떠했는가? 비교해 볼 것

- 동아시아사에서 군현제는 중앙집권체제와 동의어

- 그 밖의 중앙집권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들

- : 도량형의 통일, 도로망의 정비, 문자의 통일, 민간의 병기 몰수

- 이런 정책들 역시 동아시아사에서 거듭 반복됨

- : 사상의 통일... 국가가 허용한 것(법가) 이외를 금지. 학문의 국가독점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I. 진의 통일과 황제 지배의 출현

- 그 밖의 중앙집권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들 (계속)
  - : 황제의 권위 과시...봉선(封禪), 지방 순행(巡幸)
- 시황제의 죽음과 진의 멸망
  - : 권력층 내부의 분열/다툼
  - : 무리한 대토목 공사① 만리장성(萬里長城) 수축
  - : 무리한 대토목 공사② 여산릉(驪山陵)과 아방궁(阿房宮) 건설
    - 가혹한 법치, 증세, 노동력 징발→반란
  - : 진승 · 오광의 난(BC209)...사서에서 확인되는 중국최초의 농민반란
    - 이를 시작으로 각지의 유력자들도 할거 시작
    -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대표적
  - : 진의 멸망(BC206)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II. 한제국의 건설과 발전

### · 고조(高祖)의 즉위와 군국제(郡國制)의 실시

: 초왕(楚王) 항우의 패배원인...시대착오적 봉건제(=분봉제)를 지향

: 한 건국(BC206)과 고조의 황제즉위(BC202)

: 집권초기의 과제...소위 「개국공신」들의 처리문제

→어떻게 기존의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로 무난히 이행할 것인가?

→진 왕조의 군현제를 계승하고 공신들을 일반 신하로 대우하여 봉급지불?

→예상되는 반발과 고조의 타협(그 이유는 text pp.80~81 참조)

: 절충안으로서의 군국제

→최중요 공신들에게는 독립적인 국(國)을 주고 왕에 봉함(봉건제적 제후왕)

→그 밖에 지역은 진 이래의 군현제를 시행(황제 직할지)

: 국력회복을 위한 관대한 경제정책 시행

→이후 경제안정/권력안정

→황제권의 위협요소인 이성(즉 유씨가 아닌 공신출신) 제후왕 제거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중국 고대 왕조의 지방 지배 방식의 변화



진·한 제국과 고조선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II. 한제국의 건설과 발전

### · 한 무제 이전까지의 정치적 흐름

- : 관대한 경제정책의 지속→but 그 수혜는 농민에게 돌아가지 X  
→수혜를 독점한 지방의 상인/수공업자 일부가 「호족」으로 부상  
→호족들의 존재는 이후의 정치흐름 이해에 중요
- : 동성 제후왕의 득세→황제권과 갈등. Ex. 오호칠국의 난(BC154)  
→무제의 치세를 거치며 제후왕들은 몰락. 실질적인 군현제化
- : 흉노의 대외침략...미해결

### · 중앙/지방관제의 완성(text pp.85~86)

- : 구체적 내용은 생략. 행정/사법/군사권을 특정 관리에게 집중X (반란억제)
- : 오늘날의 육법(六法)에 해당하는 고대중국 역대 왕조의 국가경영 매뉴얼인 「율령격식」(=율령제)의 초기 형태가 등장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II. 한제국의 건설과 발전

#### · 한 무제의 즉위와 중앙집권체제의 완성

: 전한(前漢)의 절정기이자 후대의 불안요소들이 등장하는 시기

: 동성 제후왕 및 지방관들에 대한 황제의 지배력 강화

: 중앙의 공식적 관료조직(=외조)보다 황제직속조직(=내조)을 중시

cf. 현재로 비유하자면 총리 이하 행정부와 청와대 비서실 정도

: 유교의 정치적 이용(=정당성 확보)

: 내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정벌에 나섬

→북방의 흉노와의 전쟁(BC129~BC119)

→남방원정: 남월(南越)평정(BC112)

→동방원정: 고조선 정복과 한사군 설치(BC109)

→이런 일련의 영토확장 전쟁을 통해 당시 중국의 문화가 그 주변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중요. 후일 한 제국이 멸망하며 이들 주변지역의 정치적 공동체는 한으로부터 습득한 첨단 국가운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자립화를 시도하게 됨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III. 한 무제 시대의 빛과 그림자

- 신재정정책의 추진

- : 무제의 거둬들인 대외원정으로 인한 재정고갈이 원인

- : 구체적 내용...염철의 국가전매, 군수법, 평준법 등(상세는 text 참조)

- : 정치적 효과...지방의 상인층과 그 배후의 호족세력 견제

- 한제국의 대외관계...생략

- 실크로드의 개통과 서역도호의 설치

- : 서역(西域)이란?

- : 무제 시대 흉노 견제를 위해 장건(張騫)을 서역에 파견

- 서역의 정보가 중국에 유입. 비단길(Silkroad)의 개통과 국제무역의 시작

- : 서역과의 교역관리자 「서역도호」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IV. 유교이념의 정착과 왕망(王莽)정권

#### · 한 제국의 통치이념, 유교

: 유교의 장점...체제안정에 장점(=지배정당화에 탁월)

: 유학을 보급하기 위해 관리임용이란 수단을 가미한 점이 한대의 큰 특징  
→수도에 유학교육기관(태학)을 설치, 인재양성. 이들을 시험/천거를 통해 관리로 등용(s0 유학습득을 위한 사회적 경쟁발생→황제권 안정)

#### · 왕망정권의 개혁과 좌절

: 배경...무제의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화폐경제 발전에 따른 상인층(호족)의 득세는 지속(반면 농민은 몰락). 현재용어로 말하자면 「소득양극화의 심화」.  
무제 이후로도 황제의 억제정책은 계속되었지만,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실패

: 배경2...무제 이래의 내조 득세. 주로 외척세력이 임명. 왕망은 외척출신

: 왕망의 황제권 찬탈과 신(新) 건국(AD8~23)

: 왕망의 문제의식과 국가개혁

→경제발전이 초래한 상기 문제들에 복고적/이상화된 유교적 개혁으로 대처

→상인 · 호족층의 거센 반발. 사회혼란. 유교중시는 이민족의 이탈까지 초래

→경제발전이 불러온 변화들에 대한 왕망식의 대처법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 대체로 실패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V. 후한(後漢)의 정치와 사회

#### · 한대의 호족과 농민

: 전술한 대로 호족의 득세는 자립적인 소농을 몰락시킴

→진 · 한 왕조가 추구하던 제민 지배체제 붕괴

→호족들은 대토지(=장원)를 소유하며 종가/방계가문이 단결하여 농민지배

: 자신들의 실력을 바탕으로 중앙/지방정계로 진출(ex. 향거리선)

#### · 후한의 정치적 흐름

: 지방에서 호족이 대두. 중앙에서는 외척과 환관이 황제를 두고 대립

: 내조의 강화로 외척 득세. 황제가 이들을 다시 견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환관.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양자의 대립은 결국 황제권을 무력화시킴

: 태학 재학생 및 지식인들의 기성 정치혐오→특히 환관세력과의 대립

→제1 · 2차 당고(黨錮)사건과 태학생의 주축이던 호족세력들의 한에 대한 환멸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V. 후한(後漢)의 정치와 사회

- 태평도 · 오두미도의 유행과 황건의 반란
  - : 호족의 토지겸병, 외척/환관의 과중한 증세/부역, 대규모 재해의 빈발, 이민족의 침입→농촌사회 붕괴
  - : 황건의 난(184) 이래 신흥종교를 중심으로 한 농민반란 빈발
- 흉노의 분열과 후한의 대외관계
  - : 생략

## 1. 진(秦) · 한(漢) 통일제국의 출현과 발전

### VI. 한대인의 생활과 문화

#### · 한대인의 생활

: 「향」(鄉)과 「리」(里)···한대 독립 자영농들의 삶의 기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방 최말단 단위 명칭으로 존속  
→호족 득세로 붕괴

#### · 한대의 과학기술

: 강철 제조, 농경을 위한 천문학 발전  
: 종이의 발명(AD1C경)→동아시아 및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  
: 화타로 대표되는 한방의학의 기초가 마련됨

#### · 한대의 문화

: 유학의 유행에 따른 경학의 발달→금문학파/고문학파→훈고학의 등장  
: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이른바 「정사」(正史)의 등장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관, 세계인식에 지대한 영향. 현재에도 강력함  
→기전체(紀傳體) · 편년체(編年體) ·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란 서술형식

## 2. 역사시대 초기의 한반도와 일본 열도

- 만주/한반도 지역의 초기국가들: 아직 읍제국가들의 연합단계
  - : 이 지역에 최초로 등장한 국가 「고조선」
  - 대체로 BC7 · 6C경에 등장 (중국측 기록)
  -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유민이입, 「위만(衛滿)조선」의 성립
  - : 이후 중국 한 왕조 무렵에 부여, 고구려가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
  - : 반면 한반도 남부에 정치적 공동체들이 등장하는 것은 기원후 2~3C
- 이 시기의 일본열도
  - : 아직 정치적 공동체의 등장에 대한 기록(중국측)은 없음
  - : 일본열도가 현재와 같은 지형을 갖게 된 것은, 빙하기가 끝나 해수면이 상승한 BC1만년 전. 여러 설이 있으나 대체로 이때까지를 구석기 시대로 봄. 이후 BC 3C까지를 조몬(縄文)시대, 다시 AD 3C까지를 야요이(彌生)시대로 구분함
  - : 양자는 일반적 시대구분법으로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나, 조몬시대에 농경은 아직 일반적이지 X. 야요이 시대에 들어와 농경이 확산되며 계급이 발생하고 정치적 공동체가 등장한다(小國=쿠니).

### 3. 과제

#### · 작성방법

: 배부된 text의 내용과 각자의 조사를 통해 A4 단면2장 정도의 분량(다소 적거나 많아도 상관 없음)으로 대답하시오. 작성시에는 약간의 상상력을 활용한 추론도 허용되며, 가급적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 가능한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편이 보다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음.

#### Q1. 「군현제」와 「봉건제」에 관하여

: 진/한 왕조까지 중국인들이 경험한 봉건제와 군현제라는 두 개의 상이한 국가체제는, 역사서를 통해 후대의 중국인들은 물론 그 인접국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승되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유일(唯二)한 국가체제가 되었다.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창업자는 자신이 지배할 국가의 체제를 이 둘 중에서 선택하거나 때로는 양자를 믹스(mix)한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시기까지의 중국인들이 내놓은 봉건제와 군현제가 동아시아 역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두 체제의 특징을 각기 기술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 3. 과제

#### Q2. 유교적 이상사회와 현실과의 괴리에 관하여

: 본 텍스트를 통해 한대에 이르러 유학이 국가통치 이념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했지만, 이러한 유학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경제는, (황제와 일부 관료 외에)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자립적 소농사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유학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근대사상과 상성이 좋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비롯한 인간세계의 역사적 현실은 끊임 없는 경제발전에 기인하는 경제/정치적 불평등 사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유학자(=집정자)들은 대체로 상인층과 이들이 초래하는 사회변화를 적대시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오늘 수업의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는 것이다. (유학적) 이상주의와 (경제적) 현실주의 중 한편에 서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옹호해 볼 것.